

### 올 하반기 정기 인사 앞둔 전북자치도... 공무원 승진은 어찌되나?

## 국장급 6명 등 총 116명... 다소 적어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다. 전북자치도는 2024년 하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앞두고 있다.

도청에서 지난 11일 공개한 인사 사전예고제에 따르면 국장급(3급) 6명, 과장급(4급) 7명, 팀장급(5급) 16명, 주무관급인 6급 14명, 7급 31명, 8급 42명으로 올해 하반기 승진 예정인원은 총 116명이다.

이번 승진심사는 국장(3급)급과 과장(4급)급은 오는 17일부터 21일 사이에 시행할 예정이며, 팀장급(5급) 이하 8급까지는 7월 1일부터 5일 사이에 시행하게 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승진 인원이 적어서 승진을 기대하는 직원에게는 다소 실망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6급 이하 하위직 중 승진 인원이 비교적 적은 이유로는 육아휴직이나 각종 휴직 후 복직 등으로 인해, 승진 등으로 인한 빈자리까지 채우게 돼 남은 빈자리가 적어지기 때문이다.

### 도민들 “승진 후 도지사 정점으로 전북발전 헌신 기대”

하위직은 승진 인원이 비교적 적은데 비하여 오히려 고위직인 국장급 승진자가 6명이나 되는 이유는 정부정책의 변화로 남원과 김제 그리고 완주 3개 시·군 부단체장을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조정하다 보니 다소 인원이 늘어났다고 한다.

도청 공무원의 승진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국장급(3급)은 대상자가 6명이므로 4급에서 승진해 최소 3년이 경과한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이 승진후보자로 이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 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원 범위 안에서 인원을 결정한다.

과장급(4급)은 대상자가 7명이므로 마찬가지로 5급에서 승진해 최소 4

년이 경과한 공무원 중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상 결원 5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3배수 + 20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높은 순위로 선정한다.

팀장급(5급)의 경우는 승진예정자가 16명으로 6급에서 승진해 최소 3년 6개월이 경과한 공무원 중에서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순으로 결정한다.

주무관인 6급의 경우는 대상자가 14명으로 7급에서 최소 2년이 경과한 공무원 중에서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순으로 정한다.

7급의 경우는 대상자가 31명으로 8급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한 공무

원에서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을 대상으로 하여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를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

8급의 경우도 대상자가 42명으로 9급에서 최소 1년 6월 이상 근무한 공무원 중에서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각 1명당 2배수 + 35명을 대상으로 승진후보자 명부 고순위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이와 같이 공무원 인사실무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의 규정을 준수해 승진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승진 대상 공무원이 자신이 승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 인사실무와 공무원 임용령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이 생각할 때는 인사권자가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을 승진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전북자치도청의 경우 행정직만 있

는 것이 아니고 소수 직렬도 많이 있어 승진에 대해 관심이 있는 소수 직렬의 경우 피해의식이 많이 가질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에서 후보자 선정에 있어 소수 직렬과 여성, 어렵고 성과를 내기 힘든 부서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승진대상자로 선정해 승진에 관심을 갖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로부터 공평한 승진 인사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게 되기를 도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도민들은 승진후보에 해당하는 공무원들이 승진해 공직자로서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좀 더 국민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감싸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승진한 후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정점으로 청 내 전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전북발전에 헌신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 이원택 의원, 해수부 장관과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 현장 방문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이원택 의원(민주당, 군산·김제·부안)은 13일 강도형 해수부장관과 함께 새만금 신항 현장을 방문해 개발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풍수해 대비태세를 점검했다.

새만금 신항 추진현황 점검 이후 이원택 의원은 강도형 해수부장관은 △새만금 신항 신규 국가관리부역항 조기 지정, △항만 조기 조성 및 1-2단계 4선식 재정전환, △배후부지 재정전환 및 확장, △새만금 신항 특성화 항만 육성 추진(스마트 식품물드체인 및 수소거점 전용항만), △1단계 잡화부두 5선식에 대한 다목적 부두로 변경 등을 논의했다.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내부개발을 통한 우수한 농생명 입지조건과 대중국·동북아를 겨냥한 식품산업의 생산·가공·유통·수출 중심지로 최적화 된 곳이라”며, “신규 부역항 조기 지정 등을 통한 속도감 있는 신항 건설로 26년 2선식 우선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항만에 대한 세계적인 트렌드는 저탄소·스마트 항만이라”며, “새만금 신항을 저탄소 수소전용 항만으로 육성하고 수소에너지 잔열을 기반으로 하는 식품물드체인을 구축해 글로벌 푸드 허브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 조국혁신당, 책임의원제 실시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중앙당의 책임의원제 운영에 따라 전북의 책임의원으로서 강경숙 의원과 김재원 의원이 활동하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도당에 따르면 조국혁신당의 책임의원제는 12명의 국회의원을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전담 배치해 지역의 현안과 민원이 해결되는 데 앞장서도록 도입했다.

전북 책임위원의 한 명인 강경숙 의원은 남원 출생으로, 원광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교수로 재직했으며, 22대 국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김재원 의원은 국민의 폭넓은 사랑을 받은 가수(리아)로 백제예술대 겸임교수로 재직했으며, 국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뉴시스

## ‘부안 지진’ 시설피해 287건 전날보다 신고접수 128건 ↑

중대본, 오후 5시30분 지진 피해 상황 집계  
부안 국가유산 피해 6건... 인명 피해는 없어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의 지진으로 우리청이 깨지거나 벽에 금이 가는 등 287건의 시설 피해가 잇따랐다.

1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30분 기준 지진 발생에 따른 시설 피해는 287건이다. 전날 오후 11시 기준(159건)과 비교하면 128건 급증한 수준이다.

지진 발생 지역인 부안이 245건으로 가장 많고 인근 지역인 정읍 19건, 고창 8건, 군산 4건, 익산 3건, 순창 3건, 김제 2건, 전주 2건, 광주 1건이다.

시설 피해 유형을 보면 △유리창 깨짐과 벽에 금이 갈 △창고 건물 벽쪽 금이 갈 △화장실 타일 깨짐 △단독주택 담 기둥어짐 △맨션 문 개방 안됨 등이었다.

국가유산 피해도 부안에서만 6건 신고됐다. 부안 내소사 대응보전, 구암리

지석묘군,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상, 내소사 설선당과요사 등이 일부 파손됐다.

지진 발생 후 흔들림을 느꼈다는 신고는 198건이다. 전북 62건, 충남 27건, 충북 24건, 경기 23건, 광주 14건, 대전 14건, 전남 13건, 세종 9건, 경남 5건, 부산 2건, 경북 2건이었다. 서울과 강원도 각각 2건, 1건이었다.

여진은 17회 발생했다. 규모는 0.6부터 3.1까지다. 인명 피해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진 발생에 따라 전날 오전 8시35분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 1단계는 내륙에서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일어나거나 국내외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 진도 5 이상이 발생할 경우 가동된다.

지진 위기 경보는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뉴시스

## 부안 지진 피해 현장 돌아본 김관영 지사 “도민 충격”... 가옥점검 지시

### 향후 지진대처 방향도 설명

“피해가 있는 모든 곳에 주민 두려움 없도록 하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피해현장을 보고 한 말이다.

김 지사는 13일 도청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갖고 이 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피해규모가 크지 않지만(전북은)처음 겪는 일이고 호남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며 “(도민들의)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분들을 위해 심리적으로 안정시키는 작업이 중요할 것 같다”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옥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안전점검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건축공무원 70명이 투입돼 현재 피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전수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142곳에 대한 점검을 완료한 상태다.

향후 지진대처에 대한 방향도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전북은 전국에서 건축물 내진 설계가 낮은 지역”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내진설계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어 많은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 지진 추가 발생 대비... 도·시군 영상대책회의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13일 도청 재난상황실에서 부안군 지진과 관련해 도내 14개 시군 및 유관기관장들과 긴급영상대책회의를 갖고 지진의 추가 발생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신속한 조치를 강조하고 있다.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현재 임시대피소가 마련되어 있지만 민약을 대비해 시설을 충분히 확보해 놓 상황”이라며 “주변 리조트 등과 협조를 통해 임시거주지 등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통상적 매뉴얼

과 실제적 상황에서 행동 등이(우리는)반복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에서 지진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매뉴얼에 빠진 부분이 없는지 행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통상적 매뉴얼

